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Infant and Matern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tern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Self-Efficacy,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Infant Development

경희대학교 아동학전공
석사 이경하
조교수 서소정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Master. : Kyoung Ha Lee
Assistant Professor : So-Jung Se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ich variables of interest could be used to predict the development of infants. The variables of interest in this study were demographic variables regarding to the infants and mothers, matern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self-efficacy,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infant development.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52 infant-mother pairs and all infants included in this study were 15 months to 36 months of age. The development of Infants was assessed by classroom teachers. Data regarding the mothers' demographic information, matern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self-efficacy, and maternal stress were gathered by maternal self-report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and regression analyses. The primary results demonstrated that family income, maternal infant knowledge,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were predictive of the infant development. In addition, different patterns in the results of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observed among the infant's of different age.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results of study.

Corresponding Author : So-Jung Seo,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k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947 Fax: +82-2-961-0538 Email: seosojun@khu.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주제어(Key Words) : 영아발달 (infant development), 어머니의 영아발달에 관한 양육지식 (matern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maternal parenting stress),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maternal self-efficac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아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생애 초기 3년 동안 영아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인적·물적 환경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후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2006;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Berk, 2002).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중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능력과 기술 습득 등과 같은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부모, 특히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황희숙 외, 2008). 이러한 주장은 1세 미만의 경우, 주로 어머니(83.1%)에 의해 자녀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세 ~ 2세 영아의 경우에도 주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로(77.1%) 보고된 최근의 우리나라 영아의 양육실태에 관한 통계자료(통계청, 2005)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1차적인 기능의 대부분이 타기관으로 이행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능만은 특히, 영아기인 경우 주양육자인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영아발달에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영아기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외현적인 행동에 따라 자녀의 발달과 적응 및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행동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왔다(고윤희, 2001). 1980년대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고, 부모의 외현적인 양육행동만은 연구하는 것은 부모의 인지적 요인을 간과하고 그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는 일부 국외연구자들의 주장에 힘입어 부모의 심리적 구조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부각되었다(McGillicuddy-De Lisi, 1985). 이에 따라 최근 양육관련 국내외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 발달 간의 일차적 관계만 고려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인지적 특성인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신념 혹은 심리사회적 특성인 양육스트레스에 관하여 활발하게 다루고 있다(김영주, 송연숙, 2007; 문혁준, 1999;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신숙재, 1997; 신숙희, 전귀연, 2005; 안지영, 2001; 이영환, 오미연, 2006; Seo, 2003, 2006a, 2006b). 이러한 연구초점의 변화는 부모양육의 인지 및 심리정서적 요인을 반영하는 양육 특성이 부모 자신의 자아 형성과 그들의 실제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영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혜진, 2003; 서소정, 2004;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최형성, 정옥분, 2001; Seo, 2006a, 2006b).

영아기 부모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수행되어온 관련 연구의 흐름을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변인들, 즉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영아발달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의 양육행동 관련 국내외 연구의 흐름은 어머니가 실제 양육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과 같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보다 세분화하여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Seo, 2006b). 이는 핵가족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이전 세대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시대 소자녀가정의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사회적 관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처음 부모를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자녀양육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로인 책, 잡지,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하여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eo, 2004; Seo & Moon, 2005). 이에 다수의 국외 연구자들(Boger & Smith, 2000; Bruckman & Blanton, 2003; Massengill, 2004; Seo, 2004; Seo & Moon, 2005)은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다양한 최신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양육자인 부모의 정확한 양육지식이 영아발달에 영향력있는 변수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일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관련한 연구들이 최근들어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영주, 송연숙, 2007; 송연숙, 김영주, 2008; 윤형주, 2002; 이근영, 장유경,

임현정, 2004; 이영환, 오미연, 2006; 전지혜, 2007; 최유리, 2005; Seo, 2006b). 그러나 양육지식에 대한 실태과악 연구(김영주, 송연숙, 2007; 심성경, 변길희, 박주희, 박유미, 김은아, 2007; 최유리, 2005)나, 양육지식수준의 개인차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이해하고자 한 연구(김성혜, 2008; 김영주, 송연숙, 2007, 박인혜, 김진선, 조인숙, 강서영, 2007; 전지혜, 2007; 조복희, 정민자, 김양은, 2006; 최유리, 2005)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과 다른 양육행동변수들간의 관련성, 그리고 실제 양육지식이 영아의 발달을 예측하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국내 연구는 Seo(2006b)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양육의 인지적 측면으로서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를 둔 양육효능감은 연구자에 따라 그 개념을 정의하데 있어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대체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이고, 부모역할에서 부모가 지각하는 확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역할의 결정인자(Jones & Prinz, 2005; Teti & Gelfand, 1991)로 간주되고 있다. 즉,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제공하며, 양육행동의 근원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이다. 그동안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 관련변인 및 영아 발달과 결부지어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융통성 있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문혜준, 1999; 서소정, 2004), 영유아의 발달적 결과들, 즉 유아의 탄력성(김선희, 2006), 유아의 사회적 능력(김현미, 도현심, 2004; 문태형, 2002; Coleman & Karraker, 1998), 유아의 학습행동(김경미, 2006)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영아 발달과 양육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관련 연구(Seo, 2006b)에서 양육효능감은 영아발달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개별 영아 특성변인을 포함한 양육관련 다양한 변인들과의 역동적인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영아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육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의 누적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유발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처럼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하나인 양육스트레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Abidin, 1992).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머니의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한다는 일관성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에 대해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2005; 안지영, 2001; 장희정, 2005). 또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김현미, 도현심, 2004; 이정희, 2000)에 가늠해 볼 때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양육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의 주요 흐름을 살펴 볼 때, 외현적 양육행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관한 탐색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같이 양육의 인지 및 심리사회적인 요인들과 관련된 영아 발달에 관한 연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궁극적으로 영아 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영아, 어머니 및 가정의 사회인구적 변인을 포함하여 양육 특성변인들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정도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 있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영아기는 다른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신체, 언어, 인지, 사회정서 등 발달의 제어역에 걸쳐 급속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며, 같은 영아기에 속한다 하더라도 월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 또는 발달적 이정표 (developmental milestones)는 어느 정도 뚜렷하게 구분되어 진다(Berk, 2002; Gross & Rocissano,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이러한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는 대상의 월령 단계를 걸음마기 초기 (15개월-24개월), 중기 (25개월-30개월), 그리고 후기 (31-36개월)로 보다 세분화하여 밀도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월령을 걸음마기로 제한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12개월 미만의 영아인 경우에는 가정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집 등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15개월이 지나서야 기관보육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06) 본 연구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걸음마기가 영영아기 (15개월 미만)보다 더 적합한 월령단계로 판단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영아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월령단계별로 영아, 어머니 및 가정의 사회인구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이 해당 월령단계별로 영아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 발달과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이는 나아가 영아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이나 영아발달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본 연구대상 영아, 어머니 및 가정의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른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영아발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본 연구대상 영아, 어머니 및 가정의 사회인구적 변인,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월령단계별(15 ~ 24개월, 25 ~ 30개월, 31 ~ 36개월)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상 경기도 S시의 15개 어린이집과 A시의 6개 어린이집, 그리고 S시의 6개 어린이집, 서울시 J구의 2개 어린이집, 서울시 S구의 1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15개월 ~ 36개월 영아(평균월령 28.4개월)와 그들의 어머니 25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와 같다.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133명(52.8%), 여아가 119명(47.2%)로 남아가 다소 많았다. 영아의 월령분포는 15개월에서 18개월 영아는 23명(9.1%), 19개월에서 24개월 46명(18.3%), 25개월에서 30개월 78(31.0%), 31개월에서 36개월 105(41.7%)로 나타나 연구에 참여한 영아의 평균 월령은 28.42개월($SD = 6.14$)이었다.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27세에서 46세로 평균 33.65세($SD = 3.42$)이고, 30대가 214명(84.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65명(25.8%), 전문대학 졸업 74명(29.4%), 4년제 대학교 졸업 95(37.7%), 대학원 이상 18명(7.1%)이었다. 취업한 어머니가 157명(62.3%), 비취업 어머니는 95명(37.7%)으로 취업한 어머니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상부터 300만원 미만인 28.2%, 300만원 이상부터 400만

원 미만이 21.8%, 500만원 이상이 17.5%, 200만원 미만이 16.7%, 40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 미만이 1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N = 252)

변인	범주	빈도(%)	
영아 특성	성별	남	133(52.8)
		여	119(47.2)
	월령	15개월 ~ 18개월	23(9.1)
		19개월 ~ 24개월	46(18.3)
		25개월 ~ 30개월	78(31.0)
	31개월 ~ 36개월	105(41.7)	
출생 순위	첫째	132(52.4)	
	둘째	96(38.1)	
	셋째 이상	24(9.5)	
연령	20대	23(9.1)	
	30대	214(84.9)	
	40대	15(6.0)	
어머니 및 가정 특성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65(25.8)
		전문대학 졸업	74(29.4)
	취업 유무	4년제 대학교 졸업	95(37.7)
		대학원 이상	18(7.1)
가정 월평균 수입	유	122(48.4)	
	무	157(62.3)	
	전일제 근무	35(13.9)	
	시간제 근무	95(37.7)	
	200만원 미만	42(16.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1(28.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5(21.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0(15.9)	
	500만원 이상	44(17.5)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특성 변인인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어머니 자신에 의해, 영아발달 척도는 연구대상 영아를 현재 2개월 이상 보육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의해 각각 측정되었다. 사용된 척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Larsen과 Juhasz (1986)의 KCDI(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를 변안한 윤형주(2002)의 척도를 아동학과 교수 1인과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2인에 의해 본 연구 대상인 영아의 발달적 특성에 부합되도록 일부 수정하였다. KCDI는 원래 출생부터 3세까지 영아의 정서발달, 인지발달, 신체발달, 사회성 발달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형주(2002)가 사용한 총 54문항 가운데, 15 ~ 36개월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문항의 내용을 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보완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3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표시하는 것으로 각 문항에서 옳은 답으로 응답하면 1점을, 옳지 않은 답으로 응답하면 0점을 부과하여 점수화하였다. 양육지식의 점수분포는 1~3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에 대한 올바른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ross와 Rocissano(1988; 1998)의 걸음마기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Toddler Care Questionnaire)를 본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Gross와 Rocissano(1988; 1998)의 도구에서는 어머니가 영아기 자녀 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과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정의되는 어머니의 자신감에 대하여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개월-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개 요인에 걸쳐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평정방법은 5단계의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라면 1점, '매우 그렇다' 라면 5점으로 이어지는 평정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지를 이용하여 나올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37점 ~ 185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 척도의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의사소통능력 .89, 교육이 .85,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82, 발달지원이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94로 평가되었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83)이 개발한 PSI(Parenting Stress Index)를 축소, 개정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Abidin, 1990)를 번안한 김현미(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PSI/SF(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는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된 요인을 가지고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려고 개발된 부모보고용 질문지이다. 이 척도는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Child),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등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을 포함하며 각각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각 요인별 내적 일관성은 부모의 고통이 .85이고,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91,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88로 나타났다.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은 .93로 평가되었다.

4) 영아 발달

영아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소정, 하지영과 장혜성(2008)이 국내 영아를 대상으로 타당화를 구축한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DEP)를 사용하였다.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는 0~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교사 또는 부모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월령 단계별로 0~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 25~30개월, 31~36개월의 총 8개의 검사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월령단계별 검사지는 대근육 운동기술, 소근육 운동기술, 의사소통, 사회정서, 인지, 기본생활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현재 종일제 기관보육을 경험하고 있는 15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속한 월령단계별로 전반적인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3-18개월, 19-24개월, 25-30개월, 31-36개월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해당 월령별로 구성된 검사문항의 각문항의 수행여부에 따라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요'는 0점으로 채점되어 영역별로 총점을 기재하였다. 또한 본 연구대상이 속한 월령단계별(13-18개월, 19-24개월, 25-30개월, 31-36개월)로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92 ~ .93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아보육 전공 교수 1인과 영아보육 및 유아교육 현장 유경험자인 동시에 현재 아동학 전공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있는 전공자 2인을 대상으로 측정도구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본 조사에 앞서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와 교사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2) 본 조사

본 연구대상 표집은 편의상 경기도 성남시와 안양시, 수

원시, 서울시 종로구, 서초구에 위치한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가정)을 개별 접촉하여 그 기관에 재원중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어린이집에 방문하기 전에 연구의 취지와 참여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여 연구협조를 의뢰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였고, 영아발달검사는 영아를 최소 2개월 이상 보육한 주교사가 측정하도록 하였다. 원장님과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용 설문지를 각 가정으로 배부·회수하였고, 영아발달 검사지는 각 반 담임교사들에게 배부·회수하였다.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어머니용 설문지는 281부(80.3%), 교사용 설문지 298부(85.1%)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어머니용 설문지와 영아발달 검사지의 짝이 맞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어머니용 설문지와 교사용 설문지가 모두 회수된 경우는 279(79.7%)부였다. 이 설문지 가운데 영아의 월령이 맞지 않은 설문지, 양육지식 문항 전체에 답하지 않은 설문지, 영아발달검사의 검사자가 다른 설문지를 제외시키고 총 252부가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영아발달검사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양육효능감의 요인을 명료하게 구분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회인구적 변인에 따라 주요 연구 변인들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t-test*, *F*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 영아,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월령단계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수준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가설 및 앞서 제시된 영아발달 경향 관련 결과에 근거하여 월령에 따른 영아발달의 차이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문제의 하나인 영아발달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15개월부터 36개월의 걸음마기 영아들의 발달적 특성 또는 발달적 이정표를 근간으로 하여 보다 세분화된 월령단계인 1) 15개월에서 24개월, 2) 25-30개월, 3) 31-36개월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회귀분석에 대한 결과 및 해석, 그리고 추후 관련 논의는 영아발달을 의미있게 예측하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검증된 월령단계에만 국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및 주요 연구문제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어머니의 양육특성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우선, 어머니의 양육지식(총점)의 평균은 전체 30점 만점에서 22점(*SD* = 2.67)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하위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발달' 양육지식 평균은 6.93점(*SD* = 1.07)이었고, '인지발달' 양육지식 평균은 6.30점(*SD* = 1.08), '신체발달' 양육지식 평균은 3.87점(*SD* = 0.84), '사회성발달' 양육지식 평균은 4.90점(*SD* = 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의 경우, 가능한 점수 범위 36점부터 180점까지의 가능한 점수 범위 가운데 전체적인 양육효능감 평균은 141.17점(*SD* = 15.07)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49.04점(*SD* = 5.65), 교육은 평균 29.03점(*SD* = 4.36),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평균 36.33점(*SD* = 4.41), 발달지원은 평균 26.77점(*SD* =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36점부터 180점까지의 가능한 점수 범위 가운데 전체적인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79.40점(*SD* = 18.21)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고통은 평균 32.13점(*SD* = 7.52),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평균 20.99점(*SD* = 7.27),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평균 26.29점(*SD* = 7.02)으로 나타났다.

<표 2> 어머니의 양육특성변인의 일반적 경향 (N = 252)

변인	하위요인(문항수)	점수범위 (최저~최고)	M(<i>SD</i>)
어머니의 양육지식	정서발달 (8)	3~8	6.93(1.07)
	인지발달 (8)	3~8	6.30(1.08)
	신체발달 (5)	2~5	3.87(.84)
	사회성발달 (9)	1~9	4.90(1.62)
	전체 (30)	12~28	22.0(2.6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의사소통능력 (12)	31~60	49.04(5.65)
	교육 (8)	16~40	29.03(4.36)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9)	23~45	36.33(4.41)
	발달 지원 (7)	19~35	26.77(3.31)
	전체 (36)	98~176	141.17(15.0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12)	15~52	32.13(7.52)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2)	12~45	20.99(7.27)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 (12)	13~49	26.29(7.02)
	전체 (36)	42~146	79.40(18.21)

2) 본 연구대상 영아 발달의 일반적인 경향

본 연구대상 영아의 영아발달의 일반적 경향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영아발달 점수는 월령단계별(15 ~ 24개월, 25 ~ 30개월, 31 ~ 36개월)로 산출하였다.

15개월 ~ 24개월 월령 단계의 영아인 경우 전체적인 발달 총점의 평균은 308.07점($SD = 76.3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110점에서 최고 430점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근육운동기술, 소근육운동기술, 의사소통, 사회정서, 인지, 기본생활 순으로 각 발달영역의 평균(표준편차)는 61.57($SD = 15.59$), 47.29($SD = 14.06$), 44.71($SD = 24.43$), 52.36점($SD = 12.18$), 47.50($SD = 18.07$), 그리고 54.64($SD = 18.14$)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월 ~ 30개월 월령 단계의 영아인 경우 전체적인 발달총점의 평균은 785.26점($SD = 80.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500점에서 최고 905점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근육운동기술, 소근육운동기술, 의사소통, 사회정서, 인지, 기본생활 순으로 각 발달영역의 평균(표준편차)는 136.82($SD = 17.13$), 112.34($SD = 14.85$), 157.99($SD = 26.50$), 107.21($SD = 9.61$), 129.81($SD = 23.23$), 그리고 141.10($SD = 10.56$)인 것으로 나타났다.

31개월 ~ 36개월 월령 단계의 영아인 경우 전체적인 발달 총점의 평균은 1311.62점($SD = 79.6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1020점에서 최고 1420점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

한 대근육운동기술, 소근육운동기술, 의사소통, 사회정서, 인지, 기본생활 순으로 각 발달영역의 평균(표준편차)는 208.52($SD = 11.95$), 184.90($SD = 14.23$), 316.29($SD = 33.14$), 176.43점($SD = 11.13$), 230.05($SD = 19.25$), 그리고 195.43($SD = 1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아, 어머니 및 가정의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그리고 영아 발달의 차이

1) 영아의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른 차이

영아의 사회인구적 특성 중에서 영아의 월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표 4>와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F = 3.89$, $df = 2$, 249, $p < .05$)과 하위요인 가운데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관한 스트레스($F = 3.46$, $df = 2$, 249, $p < .05$),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스트레스($F = 3.92$, $df = 2$, 249,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전체적인 양육스트레스 총점은 24개월 이하($M = 76.23$, $SD = 17.31$)영아와 25 ~ 30개월($M = 77.21$, $SD = 16.02$)영아보다 31 ~ 36개월($M = 83.12$, $SD = 19.76$)영아를 둔 어머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가운데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스트레스는 24개월 이하(M

<표 3> 영아발달의 일반적 경향

(N = 252)

영역구성	15 ~ 24개월 (N = 70)		25 ~ 30개월 (N = 77)		31 ~ 36개월 (N = 105)	
	M(SD)	Range	M(SD)	Range	M(SD)	Range
대근육 운동기술	61.57(15.59)	20-80	136.82(17.13)	95-160	208.52(11.95)	170-220
소근육 운동기술	47.29(14.06)	20-70	112.34(14.86)	70-130	184.90(14.23)	140-200
의사소통	44.71(24.43)	0-80	157.99(26.50)	85-190	316.29(33.14)	210-350
사회정서	52.36(12.18)	15-70	107.21(9.61)	75-120	176.43(11.13)	140-190
인지	47.50(18.07)	5-70	129.81(23.23)	70-160	230.05(19.25)	170-250
기본생활	54.64(18.14)	10-90	141.10(10.56)	105-150	195.43(11.05)	160-210
전체	308.07(76.34)	110-430	785.26(80.90)	500-905	1311.62(79.67)	1020-1420

<표 4> 영아의 월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차이검증

(N = 252)

변인	하위요인	24개월 이하 (N = 69)	25-30개월 (N = 69)	31-36개월 (N = 69)	F
		M(SD)	M(SD)	M(SD)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30.94(8.40)	32.03(6.65)	32.99(7.48)	1.56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9.99a(6.65)	19.97a(6.36)	22.40b(8.09)	3.46*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	25.30a(6.75)	25.21a(6.72)	27.73b(7.22)	3.92*
	전체	76.23a(17.31)	77.21a(16.02)	83.12b(19.76)	3.89*

* $p < .05$

= 19.99, *SD* = 6.65)영아와 25 ~ 30개월(*M* = 19.97, *SD* = 6.36)영아보다 31 ~ 36개월(*M* = 22.40, *SD* = 8.09)영아를 둔 어머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 스트레스는 24개월 이하(*M* = 25.30, *SD* = 6.75)영아와 25 ~ 30개월(*M* = 25.21, *SD* = 6.72)영아보다 31 ~ 36개월(*M* = 27.73, *SD* = 7.22)영아를 둔 어머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 가운데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양육스트레스에서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t* = 2.34, *p* < .05).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양육 스트레스는 둘째 이상 영아(*M* = 25.21, *SD* = 6.51)보다 첫째 영아(*M* = 27.27, *SD* = 7.35)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교육’에 관한 양육효능감에서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t* = -2.45, *p* < .05). ‘교육’에 관한 양육효능감은 첫째 영아(*M* = 28.39, *SD* = 4.44)보다 둘째 이상 영아(*M* = 29.73, *SD* = 4.17)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영아발달은 <표 5>에 제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발달 총점(*t* = 2.23, *p* < .05)과 하위요인 가운데 대근육운동기술(*t* = 2.12, *p* < .05), 의사소통(*t* = 2.31, *p* < .05), 사회정서(*t* = 2.42, *p* < .05), 인지(*t* = 2.20, *p* < .05), 기본생활(*t* = 2.26, *p* < .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모두 둘째 영아보다 첫째 영아가 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른 차이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 변인들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지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양육지식 총점 (*F* = 5.11, *df* = 2, 249, *p* < .01)과 하위요인 가운데 사회성발

<표 5>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의 차이검증

(*N* = 252)

변인	하위요인	첫째(<i>N</i> = 132)		둘째(<i>N</i> = 120)		<i>t</i>
		<i>M</i> (<i>SD</i>)		<i>M</i> (<i>SD</i>)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32.55(7.75)		31.68(7.27)		.92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21.61(7.70)		20.30(6.74)		1.44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	27.27(7.35)		25.21(6.51)		2.34*
	전체	81.42(19.18)		77.18(16.88)		1.86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의사소통능력	48.67(5.69)		49.45(5.60)		-1.09
	교육	28.39(4.44)		29.73(4.17)		-2.45*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6.02(4.57)		36.67(4.21)		-1.17
	발달 지원	26.59(3.24)		26.97(3.378)		-.90
	전체	139.67(15.23)		142.81(14.77)		-1.66
영아 발달	대근육운동기술	153.64(60.45)		137.17(63.12)		2.12*
	소근육운동기술	130.76(58.02)		117.63(58.80)		1.78
	의사소통	208.60(115.26)		174.75(116.89)		2.31*
	사회정서	128.41(51.46)		112.46(53.01)		2.42*
	인지	158.98(77.08)		137.42(78.52)		2.20*
	기본생활	147.69(56.93)		130.96(60.42)		2.26*
	발달총점	928.07(413.28)		810.38(424.54)		2.23*

**p* < .05

<표 6>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의 차이검증

(*N* = 252)

변인	하위요인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하	4년대졸 이상	<i>F</i>
		(<i>N</i> = 65)	(<i>N</i> = 74)	(<i>N</i> = 113)	
		<i>M</i> (<i>SD</i>)			
어머니의 양육지식	정서발달	6.77(1.17)	6.85(1.14)	7.07(.94)	1.93
	인지발달	6.14(1.10)	6.20(1.01)	6.45(1.11)	2.14
	신체발달	3.91(.79)	3.84(.88)	3.87(.86)	.12
	사회성발달	4.45a(1.62)	4.93ab(1.59)	5.15b(1.60)	4.00*
	전체	21.26a(2.94)	21.82ab(2.53)	22.54b(2.50)	5.11**

p* < .05. *p* < .01.

달에 관한 지식($F = 4.00, df = 2, 249, p < .05$)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 사후검증을 해본 결과 양육지식 총점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어머니들($M = 22.54, SD = 2.50$)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어머니들($M = 21.26, SD = 2.9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가운데 사회성발달에 관한 지식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어머니들($M = 5.15, SD = 1.60$)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어머니들($M = 4.45, SD = 1.62$)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월령단계별로 영아, 어머니 및 가정의 사회인구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영아(15 ~ 36개월)의 월령단계를 15 ~ 24, 25 ~ 30, 그리고 31 ~ 36개월로 세분화하여 각 해당 월령별로 영아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월령단계별로 영아, 어머니 및 가정의 사회인구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설명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Stepwise* 방식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월령대인 25 ~ 30개월, 31 ~ 36개월에서만 영아 발달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검증되었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대적인 영향력이 검증된 두 월령대에 한해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25-30개월 영아발달

25 ~ 30개월 영아, 어머니 및 가정의 사회인구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설명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산출한 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1.42로 자기회귀 현상의 가능성이

낮아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아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양육지식($\beta = .34, p < .01$)이었고,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관한 양육스트레스($\beta = -.24, p < .05$), 가정의 월평균 수입($\beta = .22,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의 영아발달에 대한 설명력은 24.2%였다. 즉, 25 ~ 30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사회성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어머니가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관한 스트레스를 적게 가지고 있을수록,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영아의 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31 ~ 36개월 영아 발달

31 ~ 36개월 영아, 어머니 및 가정의 사회인구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설명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마찬가지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산출한 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1.77로 자기회귀 현상의 가능성이 낮아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아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의 월평균 수입($\beta = .32, p < .01$)이었고,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인지발달'에 관한 양육지식($\beta = .19, p <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4.6%였다. 즉, 31 ~ 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어머니가 '인지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영아의 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25 ~ 30개월 영아, 어머니 및 가정의 사회인구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 = 77$)

독립변인		B	β	t	R^2	ΔR^2	F
어머니의 양육지식	사회성발달	15.98	.34	3.28**	.125	.125	10.6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3.08	-.24	-2.37*	.192	.068	8.80***
가정 변인	월평균 수입	13.04	.22	2.19*	.242	.050	7.76***

1) 성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음.

2)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만 추출하여 영향력의 크기 순서대로 기재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8〉 31 ~ 36개월 영아, 어머니 및 가정의 사회인구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 = 105)

독립변인		B	β	t	R ²	ΔR^2	F
가정변인	월평균 수입	19.20	.32	3.44**	.112	.112	12.97***
어머니의 양육지식	인지발달	12.86	.19	2.01*	.146	.034	8.70***

1) 성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음.

2)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만 추출하여 영향력의 크기 순서대로 기재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변인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의 유의미한 차이 분석 결과

1) 영아의 사회인구적 변인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의 차이 결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영아발달은 영아의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김미숙(200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이 36개월 이하의 영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는 발달단계상 어머니가 남아와 여아에 대해 각각 다르게 대하는 성유형화된 양육태도가 나타나는 시기라기보다는 성별과는 무관하게 기본적인 양육(caring)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김민정(2005)의 관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영아의 월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영아의 월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스트레스는 24개월 이하 영아와 25 ~ 30개월 영아보다 31 ~ 36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령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이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스트레스가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김미숙, 2005;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신숙재, 1997)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월령이 증가하면서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이 증가하고, 자기표현력과 주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월령이 낮은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월령이 높은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빚어지는 마찰을 더 많이 지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지식과 영아

발달이 영아의 월령이 증가하면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에 관한 양육효능감은 첫째 영아보다 둘째 이상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이상 영아보다 첫째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 스트레스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경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머니의 양육경험 축적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유추되어 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지식 축적이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영아발달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발달 총점과 하위요인 가운데 대근육운동기술, 의사소통, 사회정서, 인지, 기본생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모두 둘째 영아보다 첫째 영아가 발달의 제반영역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영아발달에서 사회정서측면에서 영아의 출생순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병은(2003)의 연구결과와 어머니·교사와의 애착안정성에 있어서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조문순(200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다만 어머니가 둘째 이하의 영아보다 첫째 영아에게 실제로 사회적인 양육행동과 물체지향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는 연구(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2005)와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보다 많은 주의와 지도를 한다는 Watson과 Lindgren(1973)의 견해를 참고하여 해석해 볼 때, 부모는 일반적으로 둘째 아이보다 첫째 아이에게 더욱 세심하게 인지적 자극을 주고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양육행동의 차이는 영아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유추해 본다. 향후부모의 양육행동이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나아가 영아발달에 어

며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가설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변인에 따른 주요 연구 변인들의 차이결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그 어떤 양육특성 변수들과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터넷 이용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인터넷을 통한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식수준이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백종화, 박성연(2002)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에서는 입증되지 못하였다. Seo(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양육효능감이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와는 상반되게 양선미(200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의 연령변수는 양육특성의 하나인 양육효능감과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을 시사해준다. 추후 연구에서는 젊은 연령대의 어머니들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양육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가설 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예상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양육지식의 전체적인 총점과 하위요인 가운데 사회성발달에 관한 지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지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조복희, 정민자, 김양은, 2006; 윤형주, 조복희, 2004; 이근영, 장유경, 임현정, 2004)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윤형주와 조복희(2004)의 연구결과와 고졸 이하의 어머니보다 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에 관한 아동발달지식을 각각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복희, 정민자와 김양은(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사회성 발달 지식에 있어서 4년제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이 고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어머니들에 비해 더 높은 양육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승미(2004)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어머니들이 더 많은 수의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

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신념과 실제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발달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서소정(200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또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실제 사회성발달 지식이 고학력의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연구문제 2: 월령단계별로 영아발달을 예측하는 주요 연구변인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결과

1) 월령단계별 회귀분석결과와 유사점

월령단계별로 영아, 어머니 및 가정의 사회인구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특성변인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25 ~ 30개월과 31 ~ 36개월 월령 집단의 경우 영아발달과 관련된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25 ~ 30개월 월령집단과 31 ~ 36개월 월령집단의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영아 발달을 잘 예견해주는 변인이었다는 것이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영아발달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다는 본 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투자 관점에서 가정의 수입은 영아발달에 미치는 물질적 재화, 서비스, 경험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Becker, 1991), 즉, 가정의 수입수준은 곧 발달 및 교육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중류층 가정이 저소득층 가정보다 물리적 환경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이에 따라 성취가 달라진다는 국외 연구결과(Yeung, Linver, & Brooks-Gunn, 2002)가 이러한 관점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수입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 과정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화의 관점에서 가정의 수입과 아동의 발달간의 관련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Conger, et al., 2007; Seo, 2006a, 2006b). 이러한 사회화의 관점에서는 열악한 경제적 상태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상태는 양육자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하며, 이러한 양육자들의 심리적 상태는 결국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빈곤 집단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 어머니들보다 우울과 사회적 고립, 건강의 문제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정미와 광금주(2007)의 연구에 기초하여 볼 때, 가정의 수입은 직접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양육 스트레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영아발달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라는 본 연구 결과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관점 중 가정의 월평균 수입과 양육스트레스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투자관점이 보다 설득력 있게 지지된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환경 또는 교육적 자극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중상류층 어머니들의 실제 구매력은 영아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내의 선행연구결과(이세희, 2003; 한찬희, 2006; DeBaryshe, 1995; Duncan & Brooks-Gunn, 2000)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가정의 수입은 인지적 자극을 하는 교구들(책, 교육적 놀이감)이나 교육적인 활동들에 대한 참여기회(영어와 책읽기, 인형극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방문이나 체험학습 등)를 결정하는 요인일 수 있으며, 나아가 직접적으로 영아의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현재 국가의 저소득층과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양육 및 보육정책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저소득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시장과 연계하여 이들 가정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양육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정책(예: earned income tax credit)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영아발달 예측에 있어서 가정의 수입이 중요하다고 부각된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가정의 수입이 아동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정의 소득이 부모나 환경 변인(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부모나 환경 변인이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31 ~ 36개월 월령집단의 경우, 본 연구에서 부가적으로 실시된 분석에서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가정의 월수입과 영아발달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구체적인 자료분석, 결과 및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의 수입, 어머니의 양육지식, 영아발달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가정의 수입과 영아 발달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2) 월령단계별 회귀분석 결과의 차이점

본 연구에서는 월령단계별로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25 ~ 30개월 월령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이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31 ~ 36개월 월령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인지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영아발달지식이 영아 발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진 Seo(2006b)의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그 내용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가 양육지식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오프라인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을 계획할 때 사회성 발달, 인지발달에 관한 양육지식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관보육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동향에 발맞추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서 영아를 돌보는 교사의 양육지식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에서의 교사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25 ~ 30개월 월령단계에서만 발견되었다.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관한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양육현장에서 부지불식간에 신체접촉을 통해 순간순간 자신의 내적 심리상태를 영아에게 전달하면서(Hertenstein, 2002) 영아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Weiss, Wilson, Seed, & Paul, 2001). 실제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애정적인 접촉 유형을 더 자주 했다고 한다(김수정, 광금주, 2004). 공보육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감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영아기 어머니들이 보다 안정적인 내적 심리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확립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어머니들이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관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지 않도록 '영아기 부모-자녀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실제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월령단계별로 영아 발달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어, 영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어머니와 관련된 양육관련 변인들만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영아발달을 예측하는 모든 변인들을 고려했을 때 변인들의 설명력이 낮은 경향이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 뿐 아니라 다른 가외 변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로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어린이집 교사와 생활하고 있었기에 어린이집 관련 변인이나 영아반 담당 교사 관련 변인을 함께 포함시켜 살펴볼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응답한 설문지가 보육시설을 거쳐서 회수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솔직한 응답보다는 자기 방어기제가 반영된 응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추후 연구방법상으로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가정방문과 관찰이 설문지법과 병행되어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대상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와 어머니로 한정하였는데, 추후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기관보육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영아발달을 비교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몇 가지 차원에서 의의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인지적 또는 심리·정서적 요인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들 요인들 간의 관계, 혹은 양육의 특정한 요인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육의 인지적 및 심리·정서적 요인과 영아의 발달 결과를 결부지어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걸음마기를 보다 세분화하여 월령별로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월령에 따른 영아발달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각의 변인들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영아 발달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자녀양육관련 이론 및 실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고을희(2001). 자녀의 성,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광금주, 김수정(2004). 어머니의 내적 변인에 따른 영아와의 신체접촉 유형간 비교 : 우울, 태도,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1), 1-18.
 김경미(2006).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미숙(200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미숙, 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김민정(2005). 영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과 이상적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선희(2005). 유아의 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5(4), 191-209.
 김수정, 광금주(2005). 어머니의 내적 상태에 따른 상황에서의 접촉 유형의 비교: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접촉태도,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8(2), 1-21.
 김성혜(2008). 어머니의 배정에 따른 양육지식과 영아와의 상호작용.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영주, 송연숙(2007). 1세-3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75-493.
 김경미, 광금주(2007). 취학 전 빈곤아동에 대한 부모, 가정환경 자극,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 탐색. **아동학회지**, 28(4), 305-317.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김혜진(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 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1-11.
 문혁준(200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 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M.(2005).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5-30.
- 백종화, 박성연(2002).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터넷 이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35-145.
- 서소정(2004). 양육효능감 : 자녀양육행동 매개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 서소정, 하지영, 장혜성 (2008). 0-36개월 영아발달선별 검사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9(5), 13-30.
-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 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송연숙, 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희, 전귀연(2005).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교육연구**, 2(2), 31-61.
- 심성경, 변길희, 박주희, 박유미, 김은아(2007). 영아의 발달 수준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정확도. **육아지원연구**, 2(2), 43-58.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선미(2007). 어머니의 취업형태에 따른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가족부(2006). 2005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 오미연(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연구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수명(2007). **마우스로 잡는 SPSS 14.0**. 서울: 인간과 복지.
- 윤형주(2002).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형주, 조복희(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 및 그 관계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59-88.
- 이근영, 장유경, 임현정(2004). 영아모의 자녀양육지식 수준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1), 45-63.
- 이병은(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초기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태(2007). **아동발달이론**. 서울: 학현사.
- 이세희(2003). 저소득층 가정환경과 영아의 언어발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미(2004).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환, 오미연(2006).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9(3), 47-62.
- 이정희(2000). 어머니가 인지한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2008).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이훈영(2006). **이훈영교수의 SPSS를 이용한 데이터분석**. 서울: 청람출판사.
- 이훈영(2007). **이훈영교수의 마케팅조사론**. 서울: 청람출판사.
- 장희정(2005). 체벌에 대한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모의 양육효능감 증재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지혜(2007). 영아 발달수준에 대한 부모의 지식 정확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문순(2007).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정서성.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복희, 정민자, 김양은(2006).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1), 89-109.
- 최유리(2005). 어머니의 육아방식 및 양육지식에 관한 연구-12개월 이하의 첫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현철(2007). **사회통계방법론**. 서울: 나남출판사.
-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통계청(2005). 10세 이하 자녀양육실태. <http://www.nso.go.kr>에서 2008. 9. 5 인출.
- 한찬희(2006). 만2세 영아의 문해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가정문해환경.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희숙, 이희영, 이경화, 이정화, 신경숙, 윤경미 외(2008). **아동발달과 교육**. 서울: 학지사.

- Abidin, R. P.(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21(4), 401-412.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American Psychologist*, 122-127.
- Becker, G. S.(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rk, L. E.(2002). *Infants and children: Prenatal through middle childhood*. Boston, MA: Allyn & Bacon.
- Boger, R., & Smith, A.(2000). Social support human ecological process for parenting support and community change.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 Bruckman, M., & Blanton, P. W.(2003). Welfare-to-work single mothers' perspectives on parent involvement in Head Start: Implications for parent-teacher collabor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0(3), 145-150.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179-193.
- DeBaryshe, B. D.(1995). Maternal belief systems: Linchpin in the home reading proces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20.
- Duncan, G. J., & Brooks-Gunn, J.(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1), 188-196.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1), 70-95.
- Gross, D., Rocissano, L., & Roncoli, M.(1989). Maternal confidence during toddlerhood; Comparing preterm and fullterm group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 1-9.
- Hertenstein, M. J.(2002). Touch: Its Communicative Function in Infancy. *Human Development*, 45, 70-94.
- Jones, T. L., & Prinz, R. J.(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341-363.
- Massengill, D.(2004). Do parents benefit? Perspectives of low-income parents who received a free early readiness program for their child.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1(3), 179-185.
- McGillicuddy-De Lisi, A. V.(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7-2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eo, S.(2003). Maternal self-efficacy,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from Early Head Sta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U.S.A.
- Seo, S.(2006a). A study of Korean working mothers with infant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social poli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6(5), 479-492.
- Seo, S.(2006b). A study of infant developmental outcome with a sample of Korean working mothers of infants in poverty: Implications for early intervention program,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3(4), 253-260.
- Seo, S., & Moon, H. J.(2005). Rethinking Parenting Education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Qualitative Analysis of Parents' Perceived Program Effectiveness and Implications. *The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12(4), 265-275.
- Teti, D. M., & Gelfand, D. H.(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atson, R. I., & Lindgren, H. C.(1973). *Psychology of the Child*(2nd ed). NY: John Wiley & Sons.
- Weiss, S. J., Wilson, P., Seed, J., & Paul, S. M.(2001). Early tactile experience of low birth weight children: Links to later mental health and social adapta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0, 93-115.

Yeung, W. J., Linver, M. R., & Brooks-Gunn, J.(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3, 1861-1879.

접 수 일 : 2009년 1월 29일

심사시작일 : 2009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3월 16일